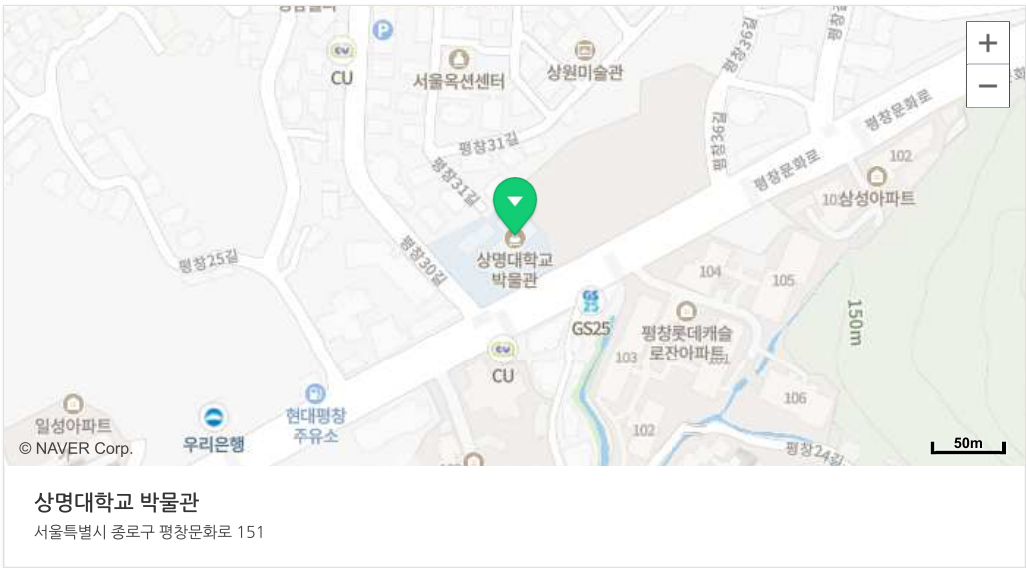


시작하며

안녕하세요 상명대학교 박물관 11기 블로그 기자단 활동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상명대학교 박물관은 평창동 소재의 박물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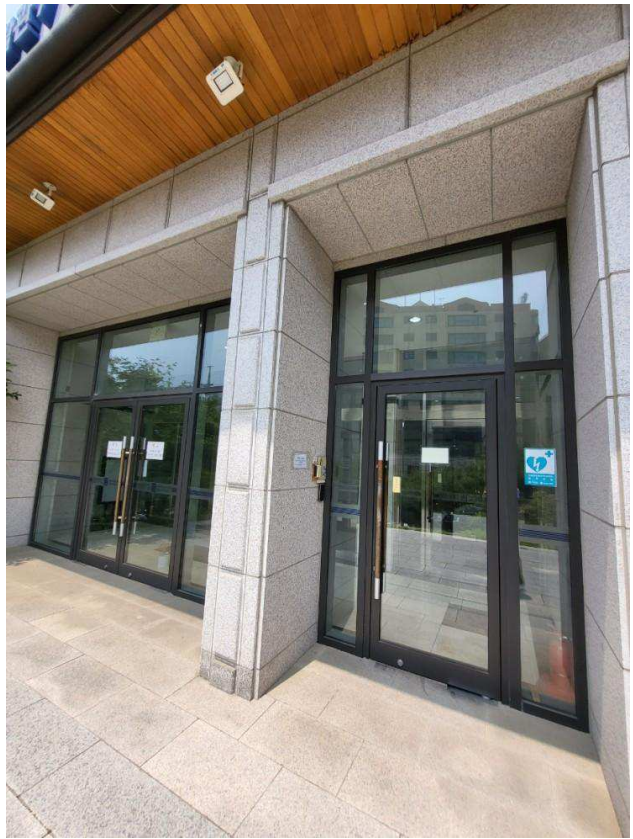
상명대학교 박물관

홈페이지: <https://museum.smu.ac.kr/>
TEL: 02-781-7920
운영시간: 월 ~ 금, 10:00~17:00
관람료: 무료

'롯데아파트' 버스 정류장에서 내리면 왼편에 바로 박물관 건물이 위치합니다.
이용 가능 버스: 110B, 153, 1020, 1711, 7211



버스에서 내리니 곧바로 박물관 안내판이 보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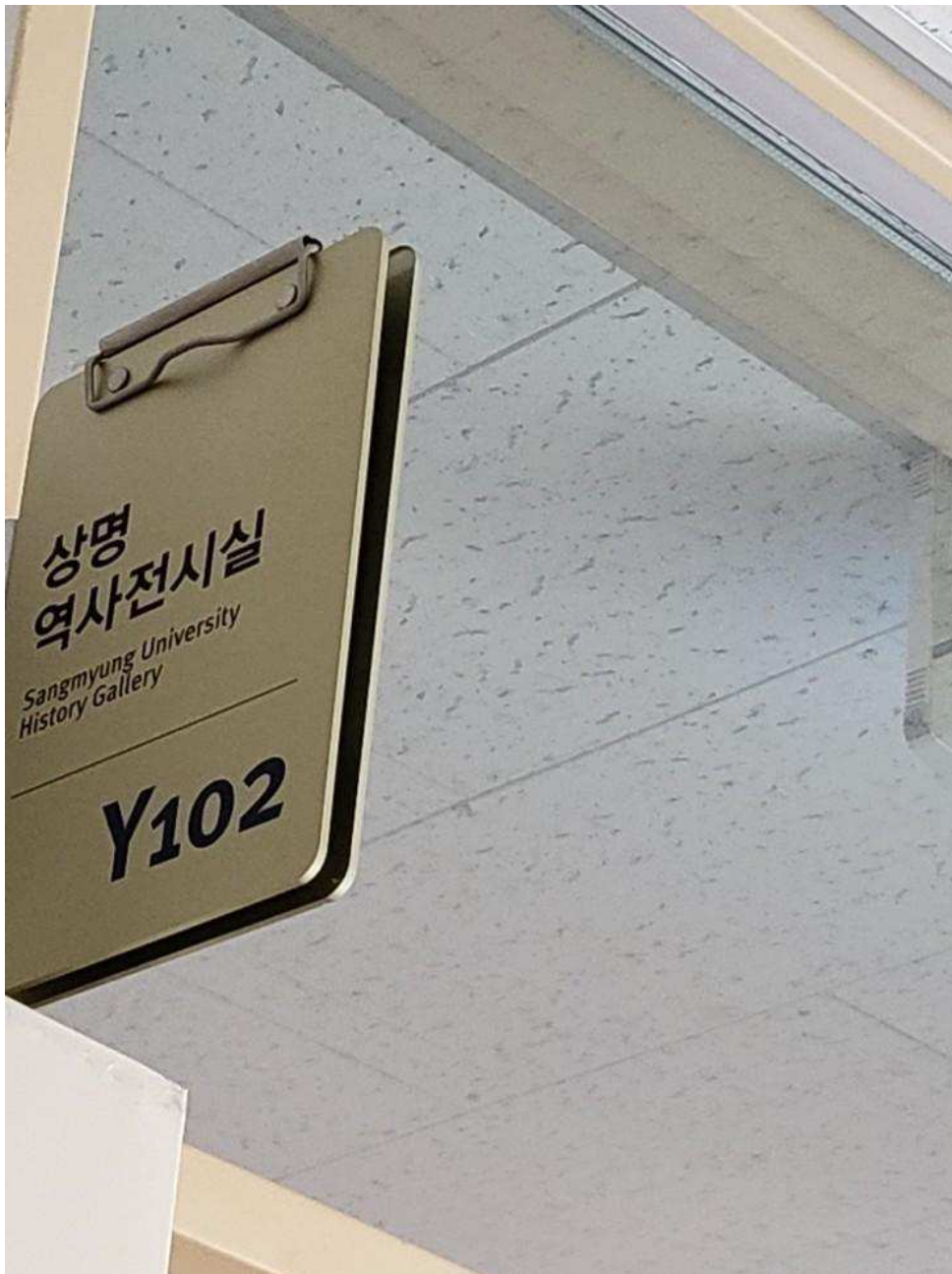
안내판을 따라가면 박물관 입구가 나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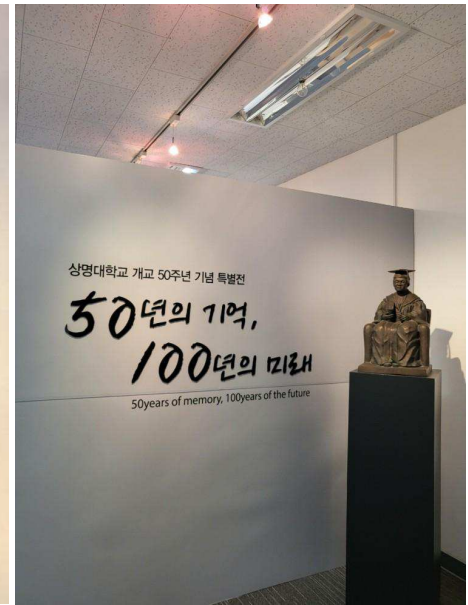


상명대학교 박물관엔 총 4개의 전시장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1층: 상명 역사전시실/ 기획전시실, 2층: 상설전시실과 기증 전시실이 있으며
입구를 통해 들어온 현재 위치는 B1층이므로 엘리베이터 등을 통해 위층으로 올라가 관람 가능합니다.

1) 상명 역사전시실





가장 먼저 방문한 전시실은 상명 역사 전시실이었는데
전시장으로 들어서자마자 상명의 기틀을 다지신 분들의 사진과 간단한 연혁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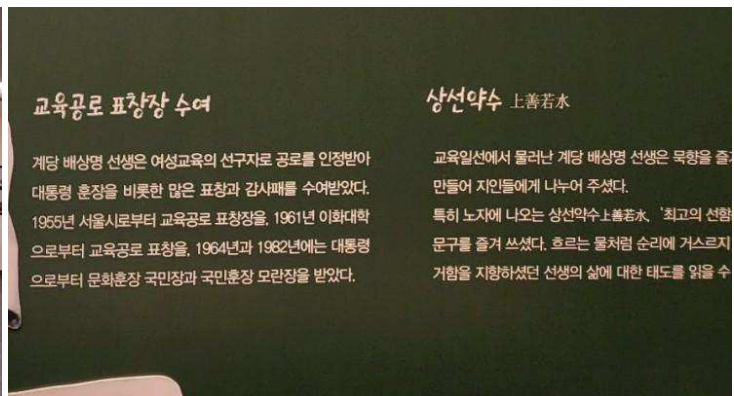
상명대학교는 1937년 상명고등기예학원으로 출발해 39년에 상명실천여학교 승격 인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1986년 상명
여자대학교로 승격 인사를 받았으며 십 년 후인 96년에 남녀공학으로 전환됩니다.

2015년에 대학교 개교 50주년을 맞았으며 17년엔 학교법인인 상명학원의 설립 80주년을 기념한, 굉장히 역사 깊은 교육의
장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옆으로는 상명대학교의 역사 한 페이지를 장식한 자료들이 가지런히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한글로 적힌 상명대학교의 엠블럼의 색상과 배치가 무척 조화로워서 기억에 남습니다.



설립자이신 계당 배상명 선생에 대한 설명도 눈에 띄었습니다.

2. 기획 전시실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기획전시실입니다!

상명대학교 박물관 기획전시실은 다양한 주제로 기획된 특별전을 위한 공간입니다.

연 1~2회 상명대학교 소장품으로 전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시해설은 따로 없으며 자유롭게 관람해 볼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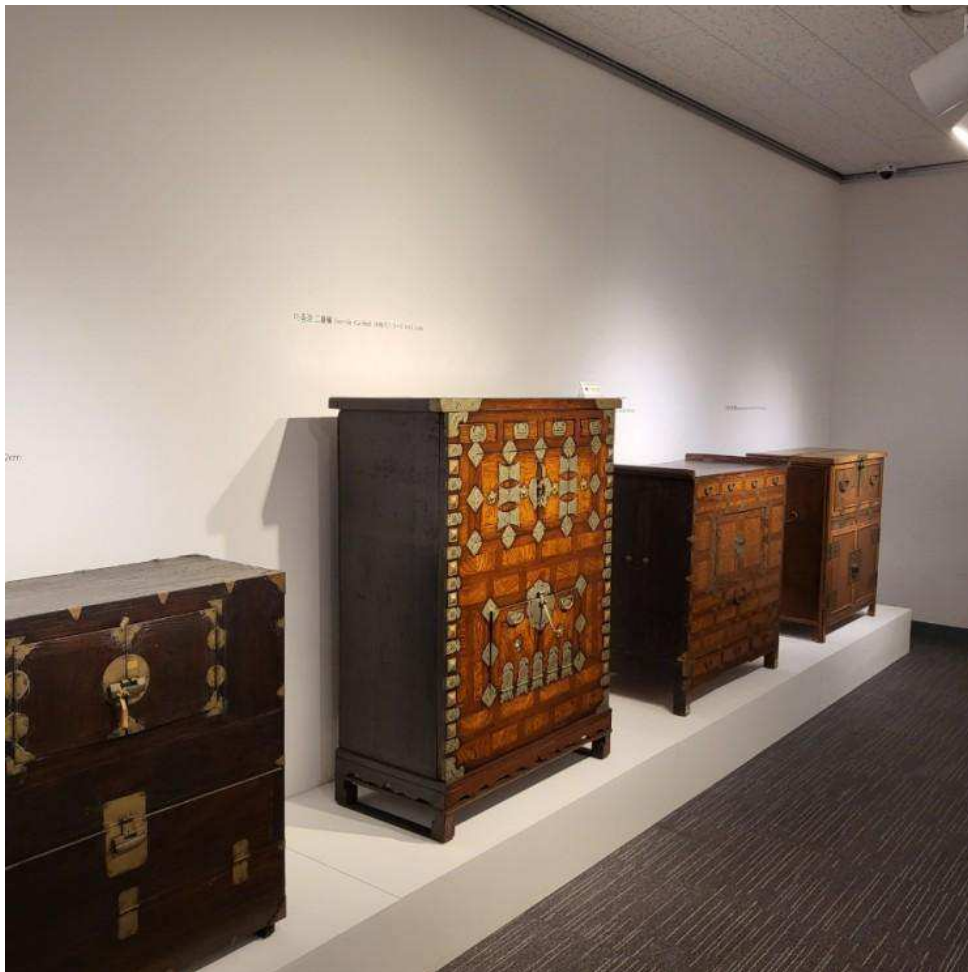
들어서면 나무의 종류에 따른 자세한 설명과 쓰임이 나와있어서
뒤에 있을 고가구들을 관람할 때 좋은 배경지식이 될 것 같습니다!!





선비의 필수품, 문방사우들이 주제별로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옛 물건일 텐데도 형태와 빛깔이 수려해서 세련됐다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20세기에 만들어진 이 사충 탁자는 옛 선비의 방에서 방금 들고 온 듯했습니다. 볼펜으로도 악필인 저에게 커다란 사이즈의 붓은 어마 무시하게 다가왔고, 어떻게 저걸로(?) 그 많은 글씨들을 쓸 수 있었는지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역시 20세기에 만들어진 이층장들이 줄지어 전시되어 있었어요 장들 각자가 정말 수려하고 사람의 손때가 묻은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가구 하나하나마다 얼마만큼의 시간과 정성이 담겨있을지 가능도 되지 않네요 :o





선비의 방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공간도 있었습니다! 종이에 적힌 글씨의 디테일까지 살아있는 공간이었어요

공간 안쪽은 고비, 문갑, 연상, 반닫이 등의 생소한 옛 가구와 소품들이 자연스레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런 방에 며칠쯤 살아보고 싶다 생각이 들 만큼 정갈한 생활감이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3) 기증 전시실



다음으로 방문한 기증 전시실엔 다양한 유럽 자기가 전시되어 있어 상명대학교 박물관 소장 유물의 다양성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어마어마한 볼륨으로 관람객들을 압도하는 티 세트가 자리하고 있었고
그 옆에는 노리다케 테이블웨어가 식탁, 의자와 함께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시장의 분위기가 무척 깔끔하고 단정했어요! 이곳에선 도자기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함께 볼 수 있었습니
다.

17세기, 동양의 문물이 유럽에 소개되면서 청화백자는 유럽의 귀족들을 사로잡았고
중국 자기는 "동양에 서 온 하얀 금"이라 불렸습니다.

그래서 당시 독일 작센 지방의 제후 아우구스투스 2세는 연금술사 뢰트거에게 황금을 만들도록 했다가 그것이 불가능하자, 황금과 같은 가치를 지닌 자기를 개발하도록 명령하게 됩니다. 연금술사들의 노력으로 마이센에서 유럽 최초로 자기 제작에 성공하였고 왕립 자기 제작소가 설립되었습니다.

이런 설명을 읽고 보니 도자기를 더 주의 깊게 보게 되더라고요! 이외에도 일본, 한국, 영국, 덴마크 등의 도자기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적혀있으니 방문하실 분들도 설명과 함께 전시를 관람하시면 전시를 몇 배로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





4) 상설전시실



어느새 마지막 전시실입니다!

이곳은 '우리 공예로의 초대, -신석기에서 조선까지-'의 테마로 구성된 전시입니다. 이곳엔 선조들의 뛰어난 공예기법과 조형성을 신석기시대에서 조선시대에 이르는 석기, 도기, 자기, 금속공예, 목공예 전시를 통해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신석기의 간석기부터 통일신라의 토기, 고려의 청자, 조선의 백자 등 우리나라의 우수한 도자 발전사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으며,

불교 미술의 아름다움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소탑과 입상 등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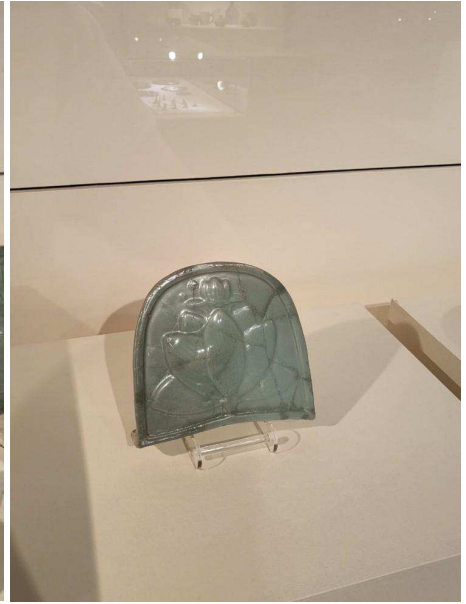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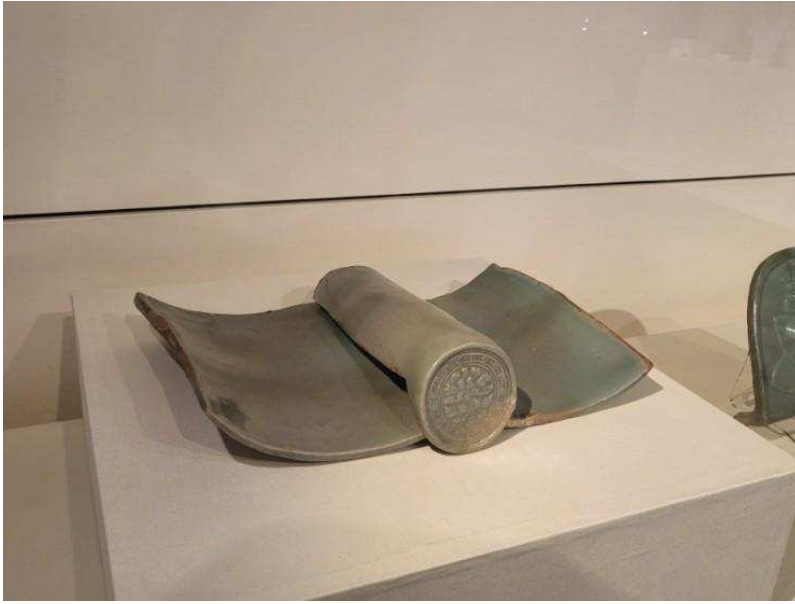
또한, 삼국에서 고려까지 시대에 따라 변화되는 수막새의 무늬 및 고려의 동경, 조선의 떡살 등을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요!



이번 전시 속 다양한 불교 유물은 개인 수집가이신 김대환 선생의 기증품 가운데 선정한 것이며
해당 유물들은 한국 고유의 디자인 개발, 불교미술이나 금속공예사 연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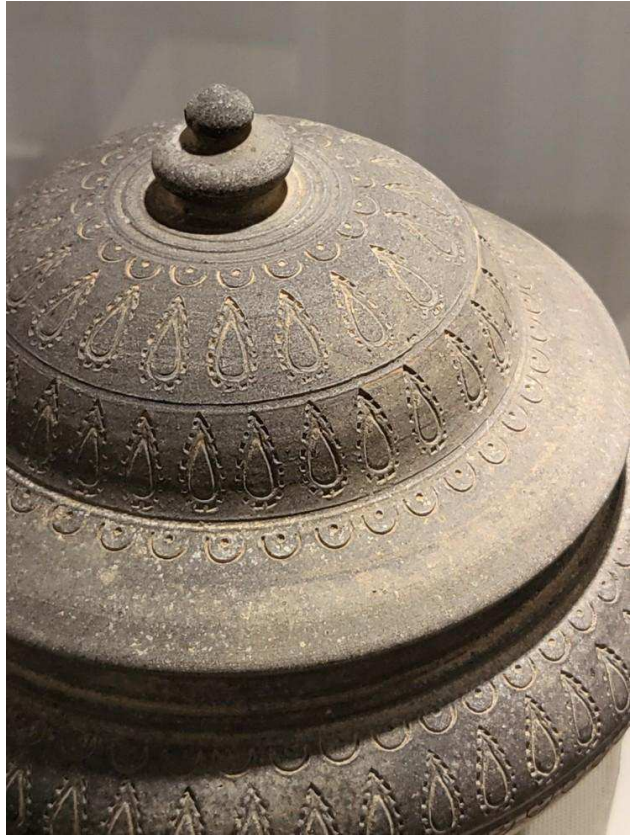
전시된 달 향아리에선 절제된 조선의 멋이 느껴졌고 청자 기와를 보며 옛 궁궐 지붕이 빛을 받았을 때 얼마나 멋진 모습이
있을지 상상해 보는 즐거움도 있었습니다!





고려 시대의 청자들 또한 정갈하게 전시되어 있었으며,
공예 불탑은 당시의 목조다층누각 형식을 충실히 모방하고 있는 게 특징이라는 것이 정말인지 가까이서 봐도 정밀한 형태
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통일신라 시대의 다양한 항아리들도 만나볼 수 있었어요! 마지막 항아리는 도장 무늬 뼈 항아리라는 명칭으로 신라 사회에 불교 정착 후 화장이 유행하며 뼈를 담은 뼈 항아리가 다양하게 만들어졌는데 그중 하나라고 합니다.







전시장 중앙 부분에도 다양한 유물들이 전시되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중 청동으로 만들어진 인장이 다양한 종류로 배치되어 있었어요

하나하나가 오랜 세월을 감내하여 이 자리에 존재하는 듯했는데 모아놓으니 귀여워 보이는 건 어째서일까요
작지만 디테일이 살아있어서 살펴보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전시장 소개를 마치며

상명대학교 박물관은 상명학원의 설립자이신 계당 배상명 선생께서 소장하신 소장품을 바탕으로 출발하였습니다.

1967년 '상명여자사범대학교 부속 민속관'을 시작으로 1995년 도서관 1층에 전시실을 개관하며 박물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었고, 문학관과 미술관이 밀집되어 있는 평창동으로 이전하여 다양한 전시공간을 갖춘 대학 박물관으로 거듭났습니다.

상명대학교 박물관이 위치한 종로구 평창동은 자연 경관이 아름다운 곳으로 수많은 문인, 예술인들의 자취가 살아있는 곳이라 박물관 인근의 다양한 미술관, 문학관을 함께 방문해도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

상명대학교 박물관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아래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글을 읽어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많은 분들이 상명대학교 박물관을 방문해 한편의 의미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박물관

새소식 상명대학교 박물관의 새소식을 확인하세요. 새소식 [모집]제11기 ...

museum.smu.ac.kr

